

선거 룰·지형 변화 '정치 빅뱅' 온다



정치 지각변동

제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이 오는 13일을 기점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다. 내년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유동성이 크다. 선거구 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 정치의 '빅 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은 차기 대권 향배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혈투가 예상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세 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관권기사 3·4면〉

◇선거구 재획정=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으로 전국 62개 선거구가 재획정 대상이다. 37개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했으며 25개 선거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개 선거구(광주 북구 을, 순천·곡성)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4개 선거구(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보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대로 간다면 농촌 지역구가 크게 줄어들 등 전국적으로 선거구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광주 1석, 전남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전남의 선거구 지형도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동농복합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총선 판 자체가 달라진다. 국회 정개특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벌써부터 권역

선거구 재획정·제도 개편 ... 지역 정치권 환골탈태 시급 차기 대권 향해 결정할 시금석 ... 여야 사활전 대결 예고

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선 시금석=20대 총선은 차기 대권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다.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완패했던 야권으로서는 20대 총선 승리는 당면 과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장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새정치연합의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 구조는 최대 난관이다.

당 내외에서는 4·29 보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올 하반기 신당 출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의석만 유지해도 성공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중원을 잠식하고 있다. 수구 정당에서 중

도보수 정당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야권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통합을 이루고 민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 야권의 역량을 최대화하지 않고는 20대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광주·전남 정치권=폭풍전야의 모습이다. 선거구 재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민심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공천 혁신 방안도 관심사다. 호남의 현실과 민심을 고려할 때 강력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YMCA에 세월호 1주기 추모 분향소

전국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분향소가 설치된 8일 광주YMCA 무진관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와 실종자의 넋을 위로하며 참배 헌화하고 있다. >관권기사 7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U대회 북한 대표단 방한 승인

오는 11~15일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대표단장(HoD) 사전회의'의 참석의사를 밝힌 북한 대표단 4명이 방한 승인을 받고 광주를 찾았다.

정부는 8일 "광주U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의 10~14일

방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광주U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가하는 장정남 북한국가대학스포츠연맹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 4명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CA

11~15일 대표단장회의 참석

장정남 부위원장 등 4명 광주 방문

123편(중국국제항공)을 통해 10일 오전 11시35분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며, 4월14일 오후 3시30분 CA132편으로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귀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대표단의 회의 참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육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일 광주U대회 공식 참가 신청서를 조직위에 제출했다.

한편 광주U대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감독위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에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과 남부대국제수영장 등의 시설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시설들은 광주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드리 햅번 아들 선 햅번 제안 '세월호 기억의 숲' 진도에 조성

임회면 백동 무궁화 동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숲이 올 상반기에 진도에 조성된다.

사회적 기업 트리플레닛은 8일 미국 유명 여배우 고(故) 오드리 햅번의 아들 선 햅번의 제안으로 '세월호 기억의 숲(Sewol Memorial Forest)'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리플레닛은 지난 2012년 설립돼 기업·동문·연예인 팬클럽 등 단위로 모금을 진행하면서 'DMZ 평화의 숲', '이효리 숲' 등 10개국에 숲 74곳을 조성해왔다.

오드리 햅번 어린이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 햅번은 트리플레닛에 "평생 아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역사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영원히 남아 기억될 숲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플레닛은 모금을 9월부터 시작해 올 연말에 종료할 예정이며 오는 5월에 목표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1인당 모금 최소 금액은 5000원~1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금은 홈페이지(www.sewolforest.org)를 통해 진행한다. 운영 비용은 선 햅번 가족이 지원하기로 했다.

기법 식수는 오는 10일 오드리 햅번 재단과 선 햅번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임회면 백동 무궁화 동산(1만 5000㎡·4537평)에서 열린다.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일정상 기법 식수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숲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궁화 동산에서 길러진 나무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통과 여부에 따라 연말에 착공이 예정된 팽목항 인근 추모공원에 옮겨 심어진다. 무궁화 동산은 팽목항과 4.16km 떨어져 있다.

세월호 기억의 숲에 세워질 현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숲 조성 참여자 명단을 볼 수 있다. 트리플레닛이 조성할 숲의 나무에는 원래 '○○나무'라고 적힌 팻말이 달려 있지만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희생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나무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나무 수는 세월호 희생자를 감안한 '304' 그루가 아닌 모금액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오는 16일에는 팽목항 일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진도씻김굿과 분향소 헌화가 열릴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 1205억원"

총 비용 5548억 예상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지자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은 5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1854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 3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세월호 인양 비용이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긴급 브리

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비 5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548억원을 세월호 인양으로 먼저 지출하고, 정해진해운과 유병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다. >연합뉴스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진다 > 6면

호석같은 남도의 섬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섬의 정반을 차지하는 전남의 섬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소중한 휴양·관광·산림·생태를 주민들과 함께 지키고 가꿔 문화와 대마가 살아 숨 쉬는 섬으로, 세계인의 힐링 명소로, 주민이 잘 살고 여행객이 행복한 매력 있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주민과 함께 > 아이디어 공모 및 지자체 참여를 통해 자연중심의 섬 가꾸기
이야기가 있는 > 고유문화, 역사, 풍광, 식정에 얽힌 스토리텔링 섬 가꾸기
자연과 공존하는 > 해지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섬 가꾸기
모두가 즐겨찾는 > 서비스와 체험거리, 볼거리와 많아 관광객이 즐거운 섬 가꾸기 > 즐겁게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섬 가꾸기

원도 청산도

여수 금오도
신안 중도
여수 하화도